2004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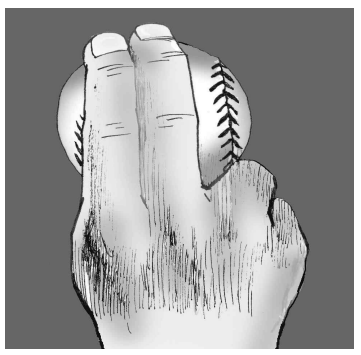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성명		수험번호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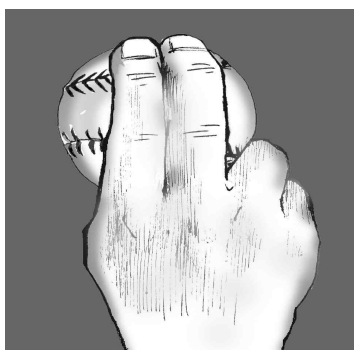
○ 문제지에 수험번호와 성명을 정확하게 기입하시오.
○ 답안지에 수험번호 및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에 따라 표기하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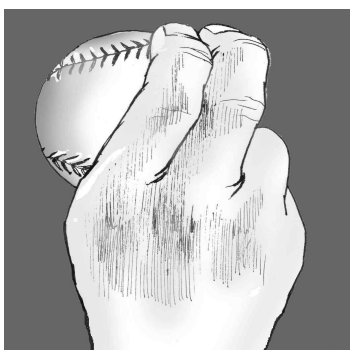
1번부터 6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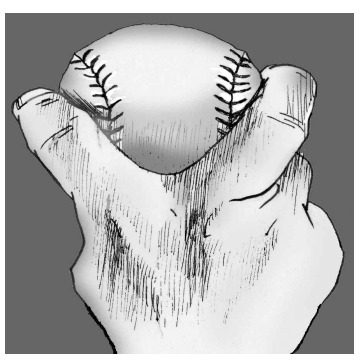
1. (물음) 이 강의에서 언급하지 <u>않은</u> 것은?

① 

② 

③ 

④ 

⑤ 

2. (물음) 이 대화에서 남녀가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1점]

①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
② 외국의 선진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③ 우리 문화부터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④ 외국인을 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⑤ 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해야 한다.

3. 이 연설에 대한 평가표이다. 평가가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번호	평가 항목
①	예화를 적절히 활용하고 있다.
②	연설 내용이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③	적절한 유머를 곁들여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④	반복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고 있다.
⑤	비유를 적절히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4. (물음) 이 비평의 내용으로 보아 방송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보도 태도를 가장 적절하게 언급하고 있는 학생은? [1점]

① 첫 번째 학생 ② 두 번째 학생 ③ 세 번째 학생
④ 네 번째 학생 ⑤ 다섯 번째 학생

[5 ~ 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5. (물음) 이 대담에서 진행자가 한 역할을 바르게 제시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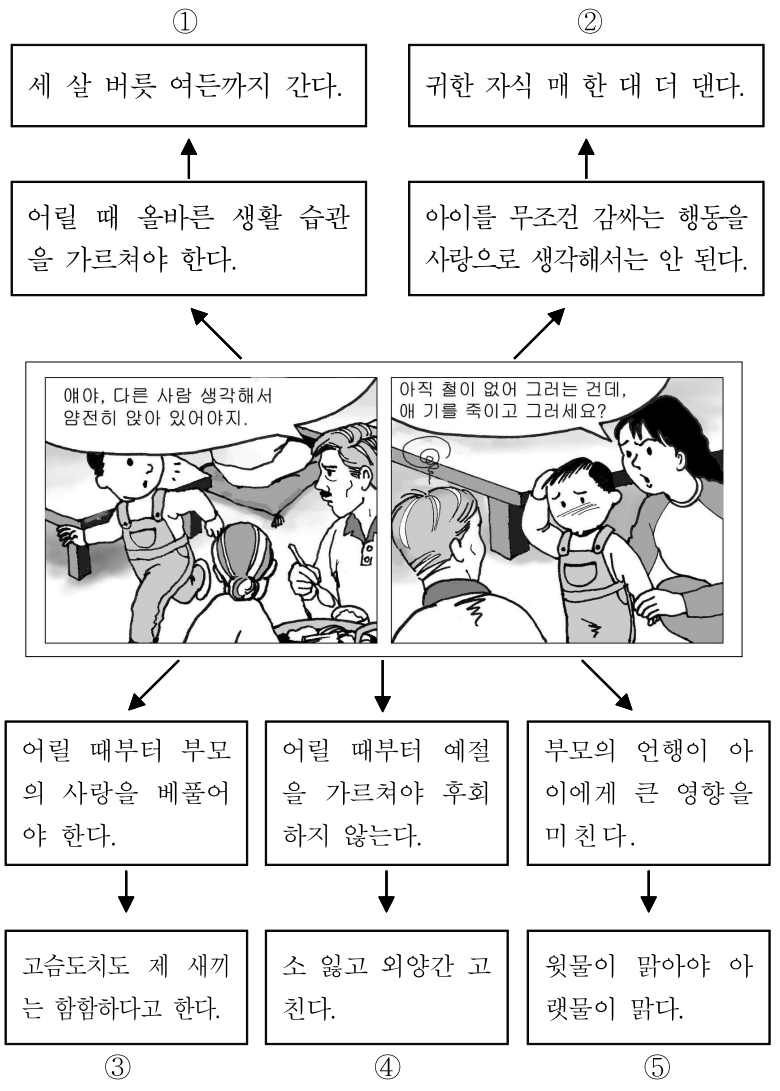
① 전문 용어를 쉽게 풀이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예상되는 반론을 소개하여 쟁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③ 논의의 초점에서 벗어나는 발언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④ 주요 사항을 점검하면서 심화된 발언을 유도하고 있다.
⑤ 구체적 사례를 덧붙여 발언 내용을 쉽게 정리하고 있다.

6. 이 대담에서 다루어지지 <u>않은</u> 내용은? [1점]

① 김옥균은 갑신정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② 갑신정변이 실패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③ 갑신정변으로 주변 국가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④ 젊은 지식인들은 왜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무시했는가?
⑤ '메이지유신'은 김옥균이 거사를 하는 데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2 언 어 영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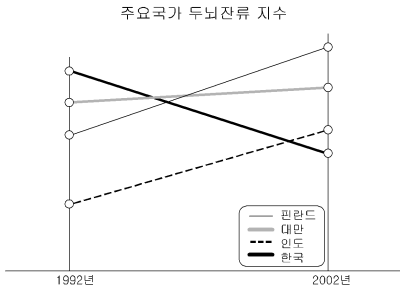
7.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의 문구를 만들기 위해, 그림을 보고 단계적으로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8. <보기>의 자료들을 종합하여 '고급 인력 유출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쓸 때, 제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그래프 자료]



[기사 자료]

광(光)통신 소자 개발 전문가인 김모(32) 박사는 월급 150만 원을 받는 임시직 연구원 생활을 그만둘까 고민 중이다. 그는 일본 ○○대 전자공학부 연구원으로 와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다.

① 해외 진출을 놓고 고민 중인 고급 인력들의 불만 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해결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② 고급 기술 인력들이 국외로 빠져나갈 경우 머지않은 장래에 국내의 신기술 개발에 문제가 생길 것임을 경고한다.
③ 고급 인력 유출로 인한 기업의 인력 부족 실태를 제시하고, 다른 국가의 고급 두뇌를 수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다.
④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 중인 국가들의 고급 두뇌 잔류 지수가 우리보다 높음을 근거로 우리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것임을 경고한다.
⑤ 다른 국가들의 고급 두뇌 잔류 지수가 높아짐에 비해 우리 나라는 낮아지고 있음을 근거로 정부의 고급 기술 인력 관리 면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9.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은 메모를 작성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조건>에 맞는 글을 전개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조건>
(1) 위인의 삶에서 교훈적 의미를 발견한다.
(2) 교훈적 의미를 현재의 문제 상황과 관련지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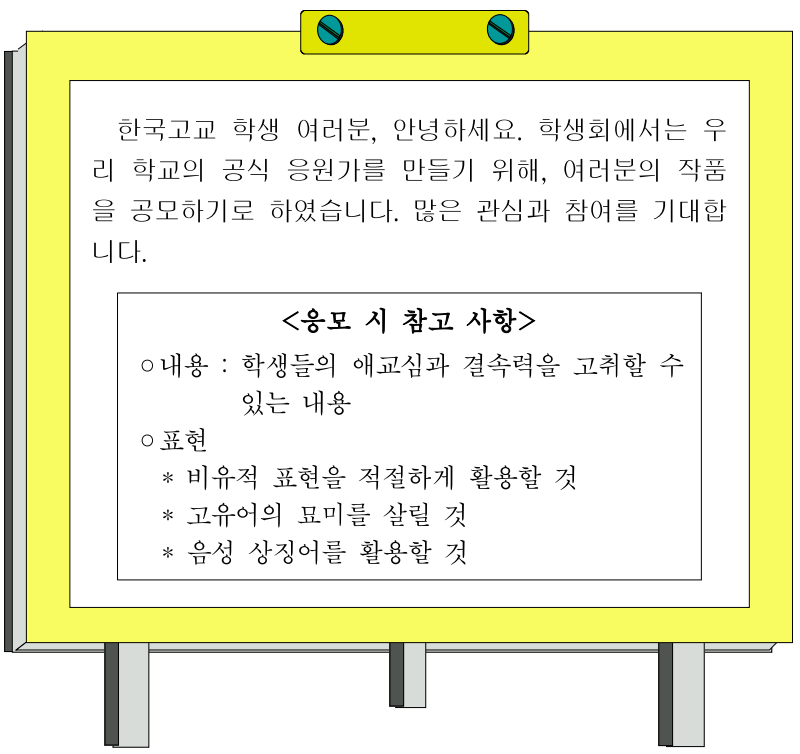
▸대상 위인의 선정 : 김구 선생

▸글감의 수집
ㄱ. 선생의 일생과 행적
ㄴ. 선생이 남긴 『백범 일지』의 구절
 -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ㄷ. 민족의 긍지를 살려 문화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민족 문화관
ㄹ. 민족의 동일한 혈통과 결속에 바탕을 둔 민족주의관
ㅁ. 자유 민주주의에 기초한 정치적 신념
ㅂ. 당면한 민족 문화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문화에 기여할 가능성 모색 : 민족 문화의 정체성 회복
ㅅ.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해야 할 오늘날의 정치적 상황

⇨

① 'ㄱ'은 '도입부'에서 활용하되, 선생의 삶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려는 의도를 밝히고 그의 행적을 언급하며 글을 시작한다.
② 'ㄷ'은 '전개부'에서 활용하되, 'ㄴ'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삼아 민족과 문화를 중시한 선생의 사상과 이념을 살펴본다.
③ 'ㄹ'은 '전개부'에서 활용하되, 이와 관련된 현안 문제인 '민족의 생존을 위한 자주 국방의 문제'에 대한 글감을 추가로 수집한다.
④ 'ㅂ'은 '결말부'에서 활용하되, '전개부'의 '삶의 교훈과 현재적 의미'와 연관지어 현재의 문화적 위기를 해결할 방향으로 제시한다.
⑤ 'ㅅ'은 '결말부'에서 활용하되, 'ㅁ'과 연계하여 현재의 정치적인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10. 다음은 어느 학교의 학생회에서 학교 게시판에 응원가를 공모한 내용이다. <참고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만든 노랫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선수 물렀거라 △△선수 나가신다
이 몸이 가는 길을 막을 자 그 누구냐
비호처럼 펄펄 날아 번개같이 씽씽 달려
본때를 보여 주마 얼마든지 덤벼라.

② 싸우면 승리한다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멋지게 겨뤄 보자 한 판 승부 겨뤄 보자
장하다 우리 선수 자랑스런 한국고교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아자아자!

③ 백 년 역사 자랑하는 우리 학교 넘버 원
백전백승 자랑하는 우리 선수 넘버 원
막힐 것이 없어라 두려울 것 없어라
빅토리 빅토리 우리 선수 넘버 원!

④ 아름다운 교정에서 함께 하는 우리 우정
황금같이 무쇠같이 튼튼한 우리 우정
태산같은 호연지기 어느 누가 꺾을소냐
그 이름도 빛나리 한국고교 만만세.

⑤ 교정에 우뚝 솟은 아름드리 소나무는
바람서리 이겨내는 웅골찬 우리 기상
하나 되어 으랏차차 천둥 소리 으랏차차
누구와 겨루어도 무섭지 않아.

11. <보기>와 유사한 어법상의 <u>잘못</u>이 나타나는 것은?

① 그것이 요즈음 학생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있는 책이다.
② 어머니께서 공부하는 나에게 간식으로 사과와 귤 두 개를 주셨다.
③ 축산 농가를 위해서 식사할 때마다 우유 한 컵씩 드셔서 건강합시다.
④ 동아리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직접 손으로 쓴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문명의 이기를 자신을 위하여 슬기롭게 사용해야 한다.

12. <보기>와 같이 졸업식에서 낭독할 글을 다듬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협의 내용】 중 타당하지 <u>않은</u> 것은?

보 기 :

정들었던 교정을 떠나기에 앞서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몇 마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상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공부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학창 생활을 통해 폭 넓은 경험을 쌓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생활하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보내는 학창 시절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럽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의 수많은 후배들 또한 더욱 큰 애정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지난 3년 간의 배움을 뒤로 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교를 떠나면서 사랑하는 후배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기대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협의 내용】

학수 : 다 읽었으면 의견 좀 말해 봐. 어떤 얘기든 수용할게.
성미 : 내가 먼저 말할게. Ⓐ <u>시작 부분에서 인사말이 빠진 것 같아. 자연스러운 인사말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어.</u>
명희 : Ⓑ <u>그 동안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는 내용이 빠져 있어. 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어.</u>
인숙 : 후배들에게 부탁하는 내용 중 첫째 항목에서 Ⓒ <u>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다가 대학 진학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으니 수정해야겠어</u>.
석주 : Ⓓ <u>선배 입장에서 후배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어.</u>
의진 : 그리고 Ⓔ <u>졸업 후의 포부와 각오 등도 제시해 주면 답사의 내용이 좀더 충실해질 거야.</u>
학수 : 역시 급하게 썼더니 내용이 부실하구나. 너희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써야겠어.

① Ⓐ ② Ⓑ ③ Ⓒ ④ Ⓓ ⑤ Ⓔ

13.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사생(死生) ② 빈부(貧富) ③ 화복(禍福)
④ 곡직(曲直) ⑤ 손익(損益)

1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 탐구 학습을 진행했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 면] 철수 : "선생님, 순이 선배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탐구과정]

<table>
<tr><td>문제 제기</td><td>국어의 '높임법'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td></tr>
<tr><td>단계별 탐구</td><td>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물, 행동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문장 내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인물들의 연령·지위·서열 및 친소의 관계, 격식과 비격식의 장면 등 문장 외적인 요소도 있다.
⇩
※발화와 관련된 인물
<table>
<tr><th>말하는 이와 듣는이</th><th>행동 주체</th><th>행동 대상</th></tr>
<tr><td>철수 → 선생님</td><td>순이</td><td>영희</td></tr>
</table>
※'철수'가 사용한 높임법의 양상
<table>
<tr><th>듣는 이</th><th>행동 주체</th><th>행동 대상</th></tr>
<tr><td>◦높임의 종결어미와 격식체의 사용 : '-습니다'
◦높임에 걸맞은 호칭의 사용 : '선생님'</td><td>◦듣는 이를 고려하여 행동 주체를 낮춤 : '선배가'</td><td>◦행동 대상을 낮춤 : '에게'</td></tr>
</table></td></tr>
<tr><td>결론 도출</td><td>국어에서 높임법에서 높임의 여부는 주로 _____[A]_____</td></tr>
</table>

① 격식이냐 비격식이냐의 장면에 따라 결정된다.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친소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③ 발화와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④ 발화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떤 문장 성분의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⑤ 행동 주체와 대상과는 무관하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한 줄의 시는커녕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그는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살며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자리에 올라
이처럼 훌륭한 비석(碑石)을 남겼다.
그리고 ㉠ 어느 유명한 문인이
그를 기리는 묘비명을 여기에 썼다.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 불의 뜨거움 꿋꿋이 견디며
이 묘비는 살아남아
귀중한 사료(史料)가 될 것이니
역사는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며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 김광규, '묘비명' -

(나)
내 말씀 광언(狂言)인가 ⓑ 저 화상을 구경하세.
남촌 한량(閑良) 개똥이는 부모 덕에 편히 놀고
호의호식(好衣好食) 무식하고 미련하고 용통하여*
눈은 높고 손은 커서 가량없이 주제넘어
시체(時體)* 따라 의관하고 남의 눈만 위하것다.
장장춘일(長長春日) 낮잠 자기 조석(朝夕)으로 반찬 투정
매팔자로* 무상 출입 매일 장취 게트림*과
이리 모여 노름 놀기 저리 모여 투전(鬪錢) 질에
기생첩 치가(治家)하고* 오입장이 친구로다.
사랑에는 조방(助幇)군*이 안방에는 노구(老嫗) 할미*
명조상(名祖上)을 떠세하고* 세도(勢道) 구멍 기웃기웃
ⓒ 염량(炎凉)* 보아 진봉(進奉)하기 재업(財業)을 까불리고
허욕(虛慾)으로 장사하기 남의 빚이 태산이라.
내 무식은 생각 않고 어진 사람 미워하기
후(厚)할 데는 박하여서 한 푼 돈에 땀이 나고
박(薄)할 데는 후하여서 수백 냥이 헛것이라.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니* 반복소인(反覆小人)* 허기진다.
내 몸에 이로우면 남의 말을 탄치 않고
친구 벗은 좋아하며 제 일가(一家)는 불목(不睦)하며
병날 노릇 모두 하고 인삼녹용 몸 보(補)하기와
주색잡기(酒色雜技) 모두 하여 돈 주정을 무진 하네.
부모 조상 아주 잊고 ㉡ 내 인사(人事)는 나중이요 남의 흉만 잡아낸다.
내 행세는 개차반에 경계판(警戒板)*을 짊어지고
없는 말도 지어내고 시비에 선봉(先鋒)이라.

- 작자 미상, '우부가' -

* 용통하여 : 소견머리가 없고 매우 미련하여
* 시체(時體) : 그 시대의 유행
* 매팔자 : 놀기만 하는 팔자
* 게트림 : 거드림을 피우며 하는 트림
* 치가(治家)하고 : 살림을 넉넉히 해 줌
* 조방(助幇)군 : 오입을 중매하는 사람
* 노구(老嫗) 할미 : 뚜쟁이 할머니
* 떠세하고 : 억지 위세를 부리고
* 염량(炎凉) : 더위와 추위. 세력의 성쇠(盛衰)
* 승기자(勝己者)를 염지(厭之)하니 :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니
* 반복소인(反覆小人) : 언행을 이랬다저랬다 하는 줏대 없는 사람
* 경계판(警戒板) : 행동을 깨우치는 말을 적은 나무판

(다)
ⓓ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금즉하여* 풀쩍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거고.
모쳐라 날랜 낼싀망정 ⓔ 어혈(瘀血)질* 뻔하괘라.

- 작자 미상, 사설시조 -

* 금즉하여 : 섬뜩하여
* 어혈(瘀血)질 : 피멍이 들

15.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 (나)는 대상의 모습을 희화화하고 있다.
② (가), (다)는 시상 전개 과정에서 화자가 바뀌고 있다.
③ (나), (다)는 의인화의 표현 방식을 활용하였다.
④ (가), (나), (다) 모두 대구와 나열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⑤ (가), (나), (다) 모두 대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16. (가)에서, <보기>의 설명을 적용할 수 있는 시구(詩句)는?

보 기

시를 읽다 보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감춘 채 아예 반대되는 표현을 쓰고는 시치미를 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는 독자들의 즉각적인 이해를 지연시킴으로써 표현의 효과를 높이거나 주제 의식을 부각시키기 위한 문학적 표현 기교의 하나이다. 독자들은 시상의 흐름을 제대로 읽어낸 후에야 비로소 이러한 시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다.

① 단 한 권의 소설도 읽은 바 없이
② 많은 돈을 벌었고 / 높은 자리에 올라
③ 이처럼 훌륭한 비석(碑石)을 남겼다.
④ 비록 이 세상이 잿더미가 된다 해도
⑤ 시인은 어디에 무덤을 남길 것이냐.

17. <보기>를 (다)로 바꾸어 썼다고 할 때, 거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보 기

두터비 파리를 물고 언덕 위에 올라 앉아
건넛산을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뛰어서 내려오다가 넘어지고 마는구나.

① 탄력적이고 확장된 문장 표현이 되었다.
② 행동이 더욱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③ 대상들간의 관계가 새롭게 바뀌었다.
④ 해학적 표현 효과가 더 높아졌다.
⑤ 내면 심리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18. <보기>의 화자 입장에서 ㉠에게 해 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들어 보라. / 저 거짓의 거리에서 물결쳐 오는 / 뭇 구호와 빈 찬양의 헛한 울림을. / 모두가 영혼을 팔아 예복을 입고 / 소리 맞춰 목청 뽑을지라도 // 여기 진실은 고독히 / 뜨거운 노래를 땅에 묻는다.

- 유치환, '뜨거운 노래는 땅에 묻는다' -

① 문인은 불의(不義)와 맞설 줄 아는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진정한 투사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②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문인의 길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세속적인 명예를 좇기만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③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 글을 쓰는 것은 문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닙니다. 문인은 시대의 선구자요 미래의 예언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④ 문인은 삶의 진실과 부조리를 가려 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러러 볼 가치가 없는 삶을 예찬하는 것은 문인의 기본적 자세를 망각한 것입니다.
⑤ 물질이 중시되는 현실에서 당신이 가난한 시인으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낀 점은 이해하지만, 당신이 생계를 위해 이름을 판 것은 문인으로서의 순수성을 스스로 내팽개친 행위입니다.

19. ㉡과 같은 행태를 비판하기에 가장 적절한 말은? [1점]

① 남의 눈에 든 티는 보면서 제 눈의 들보는 못 보는군.
② 거문고 인 놈이 춤추니 칼 쓴 놈도 춤추는 격이군.
③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꼴이로군.
④ 큰 소가 나가니 작은 소가 큰 소 노릇 하는군.
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군.

2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비석'의 차가움과 대비되는 심상이다.
② ⓑ : 청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역할을 한다.
③ ⓒ : 인물의 그릇된 처세를 엿볼 수 있다.
④ ⓓ : 억압자와 피억압자의 관계로 볼 수 있다.
⑤ ⓔ : 서글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세기의 역사가 [매콜리]는 역사학이 이성과 ⓐ 상상력이라는 대립되는 두 지도자의 지배를 번갈아 가며 받고 있기 때문에 진정 위대한 역사가가 되는 일이야말로 성취하기 어려운 이상이라고 설파(說破)하였다. 매콜리의 이러한 언급은 역사학에 내재하는 문학성과 ⓑ 과학성이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과학의 시대였던 17세기의 대표적 사상가 [ ]는 역사학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데카르트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으며 역사 서술은 이러한 인간의 기억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역사가들 또한 자신의 민족사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색하고 과장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역사 서술의 ⓒ 사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변함이 없는, '명백하고 확실한' 지식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았던 데카르트에게, 특정의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는 역사학은 시공(時空)을 초월하는 진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근거가 의심스러운 학문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 ]와 [ ]에 대한 후대의 평가가 바뀌게 된 과정은 역사 서술에서의 문학성과 과학성의 대립상을 잘 보여 준다. 헤로도토스는 페르시아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화와 전설 같은 요인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헤로도토스를 흔히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 그런 한편 헤로도토스에게는 '거짓말쟁이의 아버지'라는 명예롭지 못한 명칭이 붙기도 했다. 이야기체 역사에 재능을 보였던 그의 글에는 여전히 허무맹랑하게 보이는 기록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은 투

키디데스야말로 '과학적 역사학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투키디데스는 인간의 본성과 정확한 사료(史料)를 근거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함으로써 역사에서의 ⓓ 일반적 법칙을 ㉠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투키디데스의 역사 서술 방식은 곧 전범(典範)이 되어 많은 역사가들이 그를 모방하여 역사를 서술했다. 당시의 역사가들은 이러한 역사 서술을 통해 역사학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반대의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되었다. 전쟁의 복잡하고 미묘한 원인을 분석하고 정확하게 서술하는 일은 당시 일반 대중의 의식과는 유리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다. 역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 역사학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그러한 대중들의 관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역사의 문학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과학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역사학 자체가 '지식을 위한 ⓔ 지식'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괴테 는 '나의 행동의 폭을 넓혀 주거나 직접적으로 생기를 불어넣어 주지 못하면서 단지 지식만 전달하는 모든 것'을 증오한다고 말했다. 숨결과 혈기를 지닌 개인들이 역사를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역사가 우리의 삶 자체를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는 문학적 수사법이 특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21. 위 글의 중심 화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① 대중의 역사 인식 ② 역사와 문학의 관계
③ 역사학의 두 가지 성격 ④ 그리스의 위대한 역사가
⑤ 과학적 역사학의 연구 방법

22. ㉠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① 다시 가동하기가 어려우니 기계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② 우리는 그 동안 바람직한 전통을 세우려고 열심히 노력해 왔다.
③ 그는 휴가를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밤새 궁리를 하였다.
④ 나는 이번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려고 했으나, 대회에 참가하지도 못했다.
⑤ 삼촌은 조카를 들러리로 세우려고 했는데, 조카가 갑자기 배탈이 나 버렸다.

23.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매 주말마다 역사 현장을 탐방하는 일반 직장인들이 많다.
② 역사 관련 베스트셀러의 저자들 중에 비역사학도들이 많다.
③ 역사책을 쉽게 풀어쓰는 역사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④ 역사학자들은 오히려 역사 다큐멘터리를 잘 시청하지 않는다.
⑤ 역사가가 직접 쓴 TV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24. 문맥을 고려할 때, ⓐ~ⓔ 중 그 성격이 가장 이질적인 것은? [1점]

① ⓐ ② ⓑ ③ ⓒ ④ ⓓ ⑤ ⓔ

25. 위 글에 언급된 인물들이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헤로도토스 : 역사가 허구는 아니지만, 사실(史實)을 서술할 때에는 이야기식으로 꾸며서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이야기를 좋아하거든요.
② 투키디데스 : 역사가는 사실(史實)을 통해서 보편적인 역사의 법칙들을 밝히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정확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③ 데 카 르 트 : 그것은 역사가들에게 무리한 요구입니다. 역사가는 과학적인 사고와 서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④ 매 콜 리 : 역사를 어떻게 서술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는 역시 어렵군요. 하지만, 대중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⑤ 괴 테 : 역사를 서술할 때 대중성을 중시한다 하더라도 감동이 없는 전달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역사가는 아니지만, 역사 또한 이런 원칙을 존중해야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 12. 초가 마당

방문을 열고 떠날 차비를 한 허준과 우공보가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웅성거리는 사람들.

돌쇠 버, 벌써 떠나시는 겁니까요?
우공보 벌써라니, 약속했던 한나절이 지난 지가 언젠데. 우린 더 지체할 시간이 없네.
돌쇠 하지만 아침 나절부터 사람들이 제 차례 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데.

허준, 애원이 가득 담긴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마주하자 괴로운데. 허준과 함께 나온 촌로도 안타까운 얼굴이다. 그 때 차례를 기다리며 앉아 있던 사내가 허준에게 사정을 한다.

사내1 (㉠) 의원님, 이제 막 제 차렌데 어떻게 저까지만이라도 안 되겠습니까? 지겔 지다가 다친 허리에 침 한 대만 놔 주십시오.
사내2 제 사정도 급합니다요. 이 사람을 봐 주실꺼면 제 등창도 고쳐주십시오.
촌로 (㉡) 그만들 하게. 애초에 우리가 한나절만 있어 달라고 약조하질 않았어. 우리 같은 무지렁이들 때문에 의원님 대사를 그르쳐서야 되겠는가.

허준, 이들의 모습에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한데. 우공보, 그런 허준을 이끈다.

우공보 갑시다. 자, 그럼 우린 이만 떠나겠소.

우공보 걸음을 옮기는데. 허준, 결심을 굳힌 듯.

[A]

허준 먼저 가시오.

우공보 (㉡) 허 의원! 먼저 가라니? 하면 허 의원은 아니 갈 생각이요?

허준 갑니다. 저기 저 병자들을 다 보아 줄 수는 없는 노릇이나, 조금은 더 손을 봐 주어야 할 병자가 여럿 있습니다.

우공보 지금 제정신이요? 여기는 충청도 진천이오. 한양까지 2백 60리 길이란 말이오.

허준 하루 정도의 말미는 더 있을 것입니다. 오늘밤에라도 길을 나서면 과거를 치르는 전날까지는 한양에 당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공보 한양에 당도하면, 과장엔 곧바로 들어갈 셈이요? 그간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 시제를 가늠해 볼 여유도 없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무슨 재주로 시험을 치른단 말이요?

허준 …….

우공보 이러지 말고 함께 떠납시다. 예서 발목을 잡혀 평생을 기다려 온 과거를 포기할 셈이요?

허준이 갈등하는데. 그런 허준의 눈치를 보던 병자들 중 사내1이 앞으로 나서면서.

사내1 의원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파도 참고 살다가 의원님이 치료해 준다는 말에 조금이라도 나을까 싶어 찾아왔습니다요. 염치없는 줄은 알지만서두, 기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조금만 더 봐 주십시오.

우공보 정말 답답한 사람일세. 댁네 사정 딱한 건 알지만 우리도 평생을 별러 과거 길에 나선 거요. 그런 우리를 잡으면 죽으란 거나 마찬가지야.

허준 저는 남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내 미숙한 재주나마 필요하다면 이대로 뿌리치고 갈 순 없습니다.

우공보 허 의원!

사내1 갈려면 당신이나 가지. 왜 자꾸 방해여!

우공보 (사내를 노려보면서) 뭐야?

사내2 (㉢) 댁은 나설 거 없어요. 저기 저 의원님만 남으면 되니까. 갈길 가슈!

이 때 뒤에 있던 병자들, 맞아. 저놈 자식. 웬 방해여. 갈려면 당신이나 빨리 가! 등등의 욕설이 튀어 나온다.

우공보 (㉣) 나도 밤새 한숨도 눈 못 붙이고 당신들 병을 봐 준 사람인데. 그런 나한테 욕을 해? 에이 배은망덕한 것들!
(허준을 보고) 난 허 의원께 정이 쏠려 설사 고생이 되더라도 같이 갈까 했소만 더 이상은 저따위 우매한 것들 상대 못하겠소. 난 가리다.

허준 다급한 마음에 막말을 한 것이니 너무 서운해 마시오. 한양 가서 뵙지요.

우공보, 그런 허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초가 마당 밖으로 나간다.

허준, 그런 우공보를 보다가 고개를 돌려서 병자들을 본다. 하나같이 헐벗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가난한 얼굴. 그들이 허준을 향해 애처롭고 간절한 시선을 보내는데.

이 때 처음 허준을 버드네로 데려왔던 사내가 허준을 보고,

사내3 면목이 없습니다요. 제가 아니었으면 하마 한양 근처에 당도하였을 터인데.

허준 됐소. (마음을 다잡고 병자들을 본다.) 다들 내 말을 들어 주십시오. 의원이 들여다본다고 병이 절로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닌 것은 오직 이 침통 하나뿐 따로 약재를 지니지도 못했으니 오늘 하루 안에 모든 병이 다 나으리라는 욕심은 버리셔야 합니다. 나는 달이 뜰 때까지 있겠습니다.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최완규, '허준' -

26. 위 글을 드라마로 만들고자 한다. 제작 회의에서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마을 사람들의 궁핍한 형편을 고려하여 세트는 허름한 느낌이 드는 초가집으로 제작합시다.
② 우공보가 혼자 마을을 떠나는 장면에서는 처연한 느낌이 드는 배경 음악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③ 헐벗고 굶주린 병자들의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실감나게 전달되도록 분장에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합시다.
④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여 전통 의상을 마련하되, 마을 사람들과 의원의 신분 차이가 잘 드러나도록 합시다.
⑤ 허준과 우공보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모습을 클로즈업시켜 표정이 잘 드러나도록 합시다.

27. 다음은 위 글에 대한 독서 감상 일기이다. 위 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u>않는</u> 것은?

▲ 날짜 : 2004년 6월 ○○일 ○요일
▲ 제목 : 허준
▲ 감상 : ①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병자들을 위해 개인적인 일을 뒤로 할 줄 아는 허준이야말로 의인(義人)이라고 생각했다. ② 자기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나야 하는데도, 아파서 한 번만 침을 놓아 달라는 가난한 백성들을 보며 차마 떠나지 못하는 허준의 마음씨가 가슴에 와 닿았다. ③ 허준은 자신도 가난의 서러움을 겪었기에, 과거 시험을 포기하면서까지 가난한 병자들에게 너그럽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④ 한편, 가난하기 때문에 아파도 참고 살다가 모처럼 진료를 해 주는 의원이 찾아 왔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수많은 병자들의 딱한 처지를 생각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⑤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장차 허준처럼 희생 정신을 갖춘 훌륭한 의사가 되어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봉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28. 위 글에 그려진 갈등 양상을 잘못 파악한 것은? [1점]

①	과거를 보러 빨리 떠나기를 재촉하는 우공보	↔	하루 정도만 더 남아 있다가 떠나려는 허준
②	허준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우공보	↔	우공보 혼자 떠나기를 바라는 마을 사람들
③	과거 시험을 치르기 위해 떠나야 하는 허준의 마음	↔	남아서 병자들을 진료해 주고 싶어 하는 허준의 마음
④	허준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보내 주려는 병자들	↔	허준이 끝까지 자신들을 진료해 주기를 바라는 병자들
⑤	마을에 좀더 머물며 허준을 돕고 싶은 우공보의 마음	↔	여유 있게 과거에 대비하기 위해 빨리 떠나고 싶은 우공보의 마음

29. [A]에서 '우공보'가 '허준'을 설득하기 위해 택한 말하기 방식은? [1점]

① 실리보다 명분이 중요함을 내세워 상대방의 공감을 유도한다.
② 성취해야 할 목표를 환기시킴으로써 상대방의 결단을 촉구한다.
③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여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의 불안감을 유발한다.
④ 사실을 왜곡하여 전달함으로써 상대방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도록 한다.
⑤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위협함으로써 마음을 돌리도록 한다.

30. ㉠~㉤에 어울리는 표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 : 애타는 눈빛으로
② ㉡ : 달래는 표정으로
③ ㉢ : 놀란 얼굴로
④ ㉣ : 애원하는 얼굴로
⑤ ㉤ : 화난 얼굴로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초기의 여성상은, 가족의 생계 부양자이자 가장으로서의 남성상을 보완하는 모습이었다. 모성, 의존, 감정, 사랑스러움 등이 그 여성상의 내용을 이룬다. 그러나 후기로 가면서 여자들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얻고 경제 활동에 대거 참여하게 되자, 이런 변화는 '근대적 여성성'의 위기로 이어졌다. 여자들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일터에서는 여성적이기보다 중성적이기를 요구 받으면서도, 가정에 들어가면 남편의 요구를 충실히 들어 주는 종전의 여성성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성의 위기는 20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크게 완화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여성 중심의 남녀평등주의자들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대부분 통계적인 차이이지 절대적인 차이는 아님을 강조해 왔다. 만일 성에 따른 생득적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그냥 두어도 드러날 것이니, 미리 성별에 따라 다르게 사회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렇게 여성들이 여성성을 스스로 규정하는 운동을 펼친 결과,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 모두에서 스스로의 자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가장 선진적 조직인 벤처 회사들의 탁월한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변화를 시사한다.

여성들이 스스로 여성성을 새롭게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여성성의 딜레마'를 나름대로 극복해 갈 즈음, 남자들은 남성성의 위기를 겪게 된다. 영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책임감 있고 용감한 신사들이 급격히 사라지는 한편, 책임을 회피하고 감상적이며 나약한 '신종 남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신세대' 남자는 남자됨을 자랑스러워하기는커녕 기피하거나 거부하려 든다. 사회로부터 분리되고 아늑한 공간인 가정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고실업 시대로 접어들면서, 가장이 되는 꿈을 꾸던 남자들이 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가장 큰 거부감을 드러내는 집단은 전통적인 남성성에 자존심을 걸고 있는 보수적 남성들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여자를 보호하는 '강한 자' 또는 가장이라는 점에서 찾았던 남자들은, 여성이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자존심이 상한 남자는 무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남성성을 회복해 보려 하게 되는데, 남성들의 폭력은 상당 부분 이런 근대적 남성성의 붕괴 현상과 관련이 있다.

지금 우리는 여성성보다 남성성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점에 살고 있다. 정복과 경쟁의 표상으로서의 남성성이 해체되어야 할 지점에 온 것이다. 상호 협력과 네트워킹이 중요해지는 사회에서 사실상 근대적 남성성의 덕목인 독립성과 경쟁심, 권력 지향성은 오히려 사회적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각자적 논의들은 모두 소통과 보살핌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눈물을 흘리는 남자, 감정으로 소통할 줄 아는 남자, 평등의식과 보살핌의 능력을 가진 남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다.

31.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은 스스로 여성성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순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② 여성성의 모순이 해결되면서 위기를 느낀 남성들은 여성성의 수용을 통해 위기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였다.
③ 여성들이 대거 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가정과 직장에서 요구되는 근대적 여성성에 모순이 생기게 되었다.
④ 근대적 남성성은 소통과 상호 협력을 중시하는 현대 사회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⑤ 여성들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남성들의 폭력은 근대적 남성성의 위기와 관련이 있다.

32. <보기>는 글쓴이가 위 글의 논지를 토대로 강연을 하기 위해 작성한 원고의 도입부이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저는 오늘 '여성성과 남성성'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는 사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기니의 챔불리족 남자들은 화려하게 치장을 한 채 여자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운남성의 루그호 주변에 사는 모소족은, 여자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이루고 산답니다. 이런 사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A]

①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② 이제 우리 사회는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걸맞게 남성성을 해체해야 합니다.
③ 여성성과 남성성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④ 여성성과 남성성은 음양의 질서에 따라 생성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⑤ 우리 사회도 여성성과 남성성에 관해 이미 새롭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33.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보수적인 남성들은 이제 사회가 변화한 사실을 인정하고 전통적 남성성에서 벗어나야 할 거야.
② 글쓴이는 근대적 남성성의 긍정적인 측면은 도외시하고, 부정적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어.
③ 글쓴이는 소통과 보살핌의 능력을 갖춘 여성들이 폭력적인 남성조차 포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군.
④ 글쓴이는 남편과 아내가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가정을 여성성과 남성성이 잘 조화된 상태로 평가할 것 같아.
⑤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는 사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성의 덕목을 적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는 걸.

34. ㉠과 같은 입장에서 <보기>의 원인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우리 나라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② 정치의 타락과 불투명성이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한 불신감과 혐오감을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③ 여성들의 자금 동원 능력이 떨어져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현실적 제약을 여성들이 극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④ 우리 나라에는 여성 공천 할당제와 같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을 배려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⑤ 정치는 여성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그릇된 사회적 인식이 우리 나라 여성들의 정치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내용 구조>
(1) 해방 일 년 후, 정치인 암살 사건을 알리는 호외가 나도는 가운데, 선술집에서 한 '청년'이 초조한 모습으로 술을 마시고 있다.
(2) '세모진 얼굴'이 사무실에서 동료와 암살 성공을 자축하며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검거된 암살범의 여동생이, 오빠는 진범이 아니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실린 신문 기사를 보며 쾌재를 부른다.
[A] (3) 기다리던 '청년'이 나타나자 '세모진 얼굴'이 매우 반기지만, '청년'의 냉랭한 태도로 인해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4) 중학 동창인 '세모진 얼굴'의 설득에 비애국자 제거를 목표로 하는 '비밀결사'에 가입한 '청년'은 두 달 전 첫 암살 지령을 받는다. 생명이 위독한 어머니 때문에 갈등하던 그는 결국 지령 수행을 위해 나선다.
(5)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뒤다.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 거듭되는 모반과 무의미한 정쟁의 반복에 회의하던 '민(청년)'은 심한 자괴감에 빠진다.

"민, 너는 요전번처럼 멋지게 해치울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겠지?"

민은 그리 자신이 서지 않는 표정을 하였다.

"왜?" / "그를 죽여야 한다는 자신이 서지를 않기 때문이야."

왜? 왜? 왜? 하는 질문이 그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연거푸 떨어졌다. 세모진 날카로운 시선…… 그는 그 날카로운 시선을 대수롭지 않게 겉으로 받아넘겼다. 날카롭던 상대방의 시선이 곧 부드럽게 개어 갔다.

"또 어머니 생각이 난 모양이군, 응? 그러나 우리는 하나만을 위해 서 있지 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지."

"그만!" / 민은 상대방의 말을 급히 가로막았다.

"다만 쏘아 달라고만 해.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수다한 난관이 일어났다. 십육 시, 대낮이다. 쏘는 것은 문제없지만 도망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유리한 조건이란 인적이 드문 한길이라는 것뿐이다. 그러나 곧 묘안이 제의되었다. 즉 정각 이십 분 전부터 한 동료와 함께 담뱃가게 앞에 서 있는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담뱃가게 쪽을 향하여 서 있고 한 동료는 길 건

너편 건물 입구 쪽을 향하여 서 있는다. 만일 그 자가 나오면 그에게 암시를 주고 길을 건너간다. 곧 뒤따라 길을 건너가다 앞서 가는 그 동료를 은폐물로 이용하며 틈을 보아 상대방을 쏘아 넘기고 맞은편 골목길로 뛴다. 그러면 그 주위에 대기시켰던 동료들이 그자의 호위경관이 달려오기 전에 범인을 잡는 듯이 보이며 그 골목으로 추격한다. 다행히 그 시각에 골목 안을 지나가고 있는 청년이 있으면 무조건 그를 때려눕힌다. 그리고 그를 범인처럼 만든다. 그런데 될 수 있는 한 수사 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하여 의식불명케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불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 안을 통과하는 청년이 없으면 비상수단으로 추격하는 척하며 길을 방해하다 도주한 방향을 모호하게 만들어 놓는다.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시각에 그 골목을 지나가던 청년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 청년은 계획대로 범인으로 체포되고 신문은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는 저격 후 그곳에서 가까운 한 동료의 집에 들르자마자 옷을 벗어던지고 잠시 쓰러져 누워 있었다. 그는 아무런 생각도 없었다. 얼마 후 그는 가슴이 답답하여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선술집에 들렀다가 나오던 길에 석간 신문을 사보았던 것이다. (중략)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고 좀 써 주세요, 네! 오빠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오빠가 결코 범인이 아니라고 한마디만이라도 좀 써 주세요. 어머니가 불쌍해요. 어머니가 불쌍해 못 보겠어요. 오빠는 어머님 약값을 구하러 나갔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대로 돌아가셔요."

소녀는 흑흑 소리 죽여 흐느꼈다. 그러나 잠시 후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고개를 드는 순간 소녀의 시선은 놀랍게 빛났다. 낯선 이 청년의 두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민은 소녀에게 자기의 눈물을 뵈지 않으려고 약간 시선을 밑으로 떨구었다.

"그래 의사가 왔었소?"

민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소녀는 말을 잊어버린 듯이 의아한 시선으로 다만 그를 마주 볼 뿐이었다. 민은 포켓에서 돈을 꺼내어 소녀의 손에 쥐어 주었다. 소녀의 손은 차돌처럼 싸늘히 식어 있었다. 소녀는 너무 뜻밖의 일이라 아무 반응도 없이 다만 그가 쥐어 주는 돈을 그대로 받아 들고 마치 넋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멍하니 그를 쳐다보고 섰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도 가슴이 벅차서 그대로 돌아섰다. 소녀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이 몸을 움직거렸다.

"저— 누구신지……"

그는 대답 없이 소녀를 잠시 돌아보았다.

"오빠는 곧 돌아올 거요. 안심하고 어머님 잘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가볍게 머리를 한번 숙이고 걸음을 옮겼다. 소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다시 흘러내리고 있었다.

다음 날 저녁 민은 동료들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분위기가 몹시 초조스럽게 서로의 호흡을 죽여 가고 있었다.

"그래서?" / 세모진 날카로운 시선이 번득 빛났다.

"나는 너한테 심문을 받고 있는 게 아니야."

민은 그의 발언을 묵살이나 하듯이 쿡 찔렀다. 그 순간 세모진 얼굴은 그 미묘한 웃음을 또 입가에 훅 날렸다.

"신경이 몹시 날카롭군, 응? 너와 나와는 그러한 사이가 아닐 텐데…… 그렇잖어? 왜 너는 아홉이라는 숫자 앞까지 와서 마지막 한 숫자를 스스로 버리려나 말이다. 눈앞에 점점 틔어 가는 큰 길을 못 보고 있는 건 아닐 테지?"

그러나 민은 그 말을 상대도 하지 않았다.

[B]

"잘 들어 둬. 나는 평범한 인간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해 보고 싶어졌단 말이다. 위대(?)한 하나의 일의 성공보다는 나는 오히려 소박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이 하나라도 더 소중스러워졌단 말이다."

"너는 아직 역사라는 것을 모르고 있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희생을 강요하는 역사를 요구치 않아."

"그럼 너는 의의라는 것을 부인한단 말이냐?"

"인간의 의의를 묻고 살기보다는 나는 오히려 묻지 않고 살기를 원해."

"변절이야?" / "아무렇게 생각해도 좋아. 나는 돌아가겠어."

"어디로?" / "집으로."

"집?" / 세모진 얼굴에 경멸적인 조소가 어두운 그늘을 깔며 스쳐갔다.

"자수할 생각이냐?" / "그처럼 어리석진 않아."

민이 일어서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벌떡 일어서며 권총을 빼어 들었다. 순간 긴장이 물결처럼 쪽 깔려 갔다. 그러나 민은 한 점 표정의 동요도 없이 침착한 태도로 돌아서서 문 쪽으로 걸어 나갔다.

- 오상원, '모반(謀反)' -

35. [A]를 참고하여 위 작품 전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① 반동 인물을 '세모진 얼굴'로 지칭함으로써 그의 성격을 인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 시점에 변화를 주어 특정 사건을 묘사할 때의 제약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③ 작품 후반으로 갈수록 주인공이 겪는 내적 갈등이 좀더 세밀하게 묘사될 것이다.
④ 사건의 순차적 순서에 얽매이지 않고 시간을 역전시키는 기법을 활용하였다.
⑤ 해방 직후의 정치적 혼란기를 상황적 배경으로 하여 창작되었다.

36. 한 학생이 <보기>의 뉴스를 접하는 순간 위 작품이 연상되었다고 할 때, 그 계기를 추리한 것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보 기 :

앵커 : 한 택시기사의 훈훈한 마음씨가 엄동설한을 녹이고 있습니다. 김기령 기잡니다.

기자 : 얼마 전 운전기사 이모 씨는 택시강도를 당했습니다. 범인의 얼굴을 기억한 이 씨가 두 달 동안 잠복 끝에 잡은 범인은 18살 **소년**. 다그치는 이 씨에게 소년은 이틀간 아무 것도 먹지 못했다며 울먹였습니다. 소년이 병석에 누워 있는 누나와 단둘이 살고 있는 조그만 옥탑방. 두 남매는 난방도 안 되는 방에서 홑이불 한 장으로 엄동설한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강도를 당한 **이 씨**는 오히려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누나**에게 10만 원을 쥐어줬습니다.

① 온정을 베푼 '이 씨'의 마음가짐에서 '민'의 어머니가 생각났을 것이다.
② 뉴스 속 '누나'와 소설 속 '소녀'의 불우한 처지가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③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을 것이다.
④ '이 씨'와 '민'의 행동에서 공통적으로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발견했을 것이다.
⑤ 범인 검거를 위한 '이 씨'의 집념이 '민'의 태도와 닮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3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조건에 따라 영상물을 만들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제목] 인간과 현실
[조건] ◦ '오빠'를 주인공으로 삼을 것
◦ 사건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할 것
◦ 후일담을 꾸며내어 삽입할 것

① '민'이 출감한 '오빠'를 찾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며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② '소녀'가 물심 양면으로 노력하여 '오빠'의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③ '민'이 종종 '소녀'의 집에 찾아가 이것저것 도움을 주는 장면을 설정한다.
④ '오빠'가 암살범으로 체포될 당시의 현장 상황을 실감나게 재현한다.
⑤ '오빠'의 수감 생활을 재현하여 사회적 폭력의 부당성을 고발한다.

38. <보기>의 (가)를 참조하여 위 글의 제목을 (나)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적절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가)
모반 【謀反】 명 ① 배반을 꾀하는 것. ¶ ~자(者). ②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다른 나라를 좇고자 꾀하는 것. **모반-하다** 동

(나)
ㄱ. 서로 배반하고 배반당하며 극도의 이기적 양상을 보이는 현대 사회의 인간 관계를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ㄴ. '세모난 얼굴'이 중학교 동창인 '민'과의 의리를 배반하고, 그를 이용하려는 속셈을 냉소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ㄷ. 원칙과 신의는 없고 정략적(政略的)인 이해 득실만 난무하는 당시의 혼탁한 정치적 상황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ㄹ. 개인의 삶을 외면하는 조직의 반윤리적 실체를 깨닫고 탈퇴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태도를 표현한 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9. [B] 부분의 대화 전개 양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1점]

① 대화가 진행되면서 두 사람의 공감대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다.
② 두 사람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③ 서로의 주장이 지닌 허점을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④ 한 사람의 장황한 설득에 다른 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동요하고 있다.
⑤ 한 사람의 계속되는 부탁에도 다른 한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다.

[40～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광고 언어란 광고를 수신하는 소비자의 효과적인 수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조작된 언어 결과물들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광고에 나타난 언어 표현의 의미는 순수한 언어 내적인 의미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소통의 사회적 맥락 아래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이는 직접적인 의사 소통과는 달리 시간적·물리적 거리를 두고 수신자를 설득하는 의사 소통 방식을 취하므로 수신자의 구매 행위를 의도하고 있어야 한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품을 만든 회사에 대한 좋은 인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야만 광고의 최종 목적에 ⓐ 다다를 수 있다.
(나) 광고 언어에서 성공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송신자의 의도를 수신자가 정확히 추론할 수 있도록 언어적 표현이 잘 ⓑ 짜여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송신자는 좀더 다양한 언어 표현을 위한 전략들을 사용한다. 여기서는 반복이나 생략, 신조어를 사용하는 방법과 효과를 알아 보고,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한다.
(다) 첫째, 반복을 통한 강조의 효과이다. 일반적인 의사 소통의 효율성에서 보면 반복은 의사 소통의 효율성을 ⓒ 떨어뜨리지만 광고 언어에서는 제품명과 중심 의미에 수신자의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문장 내의 한 성분을 생략시켜 문법적 불완전성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대하는 ㉠ 수신자가 생략 부분을 복원해 내는 연상력을 기울이게 하여 강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물론 언어 기호가 아닌, 시각 이미지의 일부를 생략하는 것도 강조의 한 방법이 된다. 셋째, 신조어를 통한 시선 집중의 효과를 들 수 있다. 신조어들은 주로 기존 대상의 새로운 측면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다.
(라) 언어 기호들의 운율적·통사적 반복은 단어와 문장, 문장과 문장 간의 합리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이러한 반복을 통해 수신자는 송신자의 의도를 추론함으로써 구매 욕구를 느끼고 이는 구매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지나친 반복은 수신자에게 무의미하고 단조로운 기호의 나열로 여겨질 수도 있다. 생략은 표현 측면에서 본다면, 송신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수신자가 이미 이해했으리라고 믿는 정보를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청자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과다한 생략은 의미상의 모호성을 ⓓ 부르거나 수신자가 생략 내용을 잘못 해석하게 할 우려도 있다. 신조어는 언중들의 언어 체계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새말이 우리말의 조합 방식에 어긋나거나 정확하지 못한 어휘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마) 요컨대 광고 언어는 수신자에게 나타날 여러 가지 복잡한 반응들을 ⓔ 헤아려 치밀한 표현 전략을 사용해야만 전달력이 풍부하고 호소력이 강하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치밀한 언어 표현이라 해도 제품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전달하려는 의도를 진실되게 알려야 한다는 광고의 본질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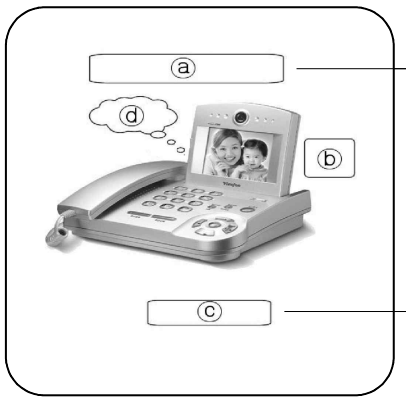
40. 위 글의 글쓴이가 집필 단계에서 구상한 내용 중, 표현 과정에서 내용이나 집필 전략이 수정 또는 변경된 것은?

(가) : 광고 언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것이 지닌 의사 소통의 특성을 밝힌다. ····· ①
(나) : 광고 언어에서 표현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한 다음, 이어 다룰 화제를 제시한다. ····· ②
(다) : 광고 언어에서 사용되는 표현의 방법들과 그 효과를 연결지어 설명한다. ····· ③
(라) : 광고 언어의 표현 방법들이 수신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항목별로 다룬다. ····· ④
(마) : 무분별한 광고 언어 사용의 실태를 염려하며 본질적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 ····· ⑤

41. <보기>는 어느 회사의 광고 기획 회의 장면이다. 위 글의 기본 관점과 언어 표현의 방법에서 벗어난 의견을 제시한 경우는?

· 보 기 ·

팀장 : 다음 그림은 이번에 우리 회사가 시판할 가정용 화상 전화기와 관련한 인쇄 광고의 시안(試案) 디자인입니다. 액정 화면 부분에는 따뜻한 가족의 이미지가 드러나도록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이디어나 의견을 한 가지씩 제시해 보죠.



① 사원A : 첨단 가정 통신 매체임을 강조하려면 '홈-인터넷 폰'이라고 명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어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② 사원B : '생략'의 방법을 사용하여 ⓐ에 '이젠 표정으로 느낀다!'란 카피를 삽입하는 게 어떨까요? 그래도 전달하려는 의미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③ 사원C : 제품의 핵심 이미지는 액정 화면에 있으므로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에 '넓은 액정(LCD) 화면, 통화 고감도'란 말을 넣는 게 좋겠습니다.
④ 사원D : 강조를 위한 이미지의 생략은 소비자를 끄는 좋은 방법이므로 회사의 상징인 로고는 생략하고, 대신 ⓒ에 '○○전자'란 회사명을 삽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⑤ 사원E : ⓓ에 "보고 또 보고, 웃고 또 웃고 … 아빠! 여보! 보고 싶어요."라고 문구를 삽입한다면, 운율적인 반복을 통해 동적인 느낌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2. ㉠을 보충해서 이해한 경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신자의 해석 방향에 따라 생략된 의미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② 수신자는 소극적인 제품 소비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인 정보 생산자로 바뀔 수 있다.
③ 생략을 복원하는 것은 수신자에게 달려 있으므로 수신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④ 광고는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성의 의사 소통을 추구하는 매체이다.
⑤ 생략의 방법은 생략되기 이전의 형식을 복원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43. 문맥상 ⓐ~ⓔ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것은? [1점]

① ⓐ : 도래(到來)할
② ⓑ : 조성(造成)되어야
③ ⓒ : 감량(減量)시키지만
④ ⓓ : 유발(誘發)하거나
⑤ ⓔ : 고찰(考察)하여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인간이 누리는 정신적인 경험의 폭과 깊이는 다른 동물에 비해 월등하다. 이는 인간의 두뇌가 다른 동물에 비해 발달해 있기에 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해면과 같은 하등 동물에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물들의 신경계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실로 경이로운 사실이다. [㉠] 것처럼, 배열된 구조와 서로 연결된 패턴 그리고 사용된 세포의 수에 따라서 기능이 판이한 신경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 독립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신경 세포의 시초는, 원시 후생동물이 운동을 시작해 앞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이 동물의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의 일부가 신경 세포로 변한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물이 앞으로 움직일 때 표피 세포는 환경상의 변화로 인해 제공되는 여러 자극에 부딪히게 되며, 일부 표피 세포는 환경 자극에 대해 보다 민감해져서 세포 내부를 흥분 상태로 변하게 하는 성질을 획득한다. 이 중 일부는 표피 내부로 들어가 세포 형태를 변화시키고 다른 세포와 연결을 형성하게 되며, 표피에 남은 신경 세포는 감각을 수용하는 역할을 한다. 내부로 들어간 신경 세포는 양쪽으로 가지를 만들어 가지의 한쪽은 표피에 남아 감각을 수용하는 세포와 연결되고, 다른 한쪽은 운동을 일으키는 반응 기관과 연결된다. 신경계와 피부가 발생학적으로 동일한 기원을 가진다는 사실은 신경 세포의 진화 과정에 대한 이러한 추측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다) 동물의 신경 세포에 의해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이 연결되면, 먹이에서 발산되는 화학 물질이나 빛 에너지 등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감각을 자극함에 따라 신경 세포는 흥분하게 되고, 이 흥분이 반응 기관에 전달된다. 감각 정보가 반응 기관으로 전달되면 동물은 반사적인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환경 자극을 탐지할 수 있게 되면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는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라) 그러나, '감각'과 '반응'이 직접 연계될 경우, 상황에 따른 유연한 행동은 불가능해진다.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되는 반응을 수행해야 생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방에 탐지된 물체는 접근해야 할 먹이일 수도 있지만 회피해야 할 천적일 수도 있다. 감각 정보에 의해 운동 반응

이 반사적으로 결정되는 신경계를 가진 동물은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

(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입력된 환경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가 요구되며,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 사이를 매개하는 처리를 담당할 세포 집단이 발달하게 된다. 단순한 '감각-반응' 단계에서 '감각-처리-반응'의 단계로 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변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은 신경계의 진화이다.

(바) 개체의 생존에 중요한 신호를 처리하는 기관인 뇌는 감각 기관과 반응 기관 사이에서 처리를 담당하는 기능을 가진 신경 세포들이 신체의 한곳으로 모여 서서히 진화한 결과물이다. 인간의 신경 체계 역시 '감각-처리-운동'의 단계를 따르고 있으며, 뇌는 신경 체계의 핵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의 두뇌는 진화의 산물이다.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동물의 뇌는 신경 세포들이 한곳으로 모여서 진화한 결과물이다.
② 인간과 동물의 신경계는 거의 동일한 형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③ 동일한 자극에 대해 일정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동물의 생존에 효과적이다.
④ 감각 기관을 가진 동물이 빛 에너지를 접하면 신경 세포가 흥분하게 된다.
⑤ 원시 동물의 일부 신경 세포는 표피 안으로 들어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한다.

45. 위 글의 관점에 따라 <보기>의 자료를 해석한 것 중, 타당하지 않은 의견은?

보 기

군인인 만득이는 /ㅏ/를 [아]로 발음하지 못하여 [이]로 발음한다. 만득이는 진지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보초병이 만득이를 발견했는데, 만득이가 속한 부대의 암호는 '고구마'였다.

보초병 : (위협적으로)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암호!
만득이 : 고구미!
보초병 :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암호!
만득이 : 고구미!
"땅!" 보초병의 총에 맞은 만득이는 쓰러지면서 말했다.
만득이 : 으윽! 고구미리니끼~.

① 진지로 들어오는 만득이는 보초병을 '딜레마'의 상황에 처하게 했겠어.
② 보초병은 상대방의 대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반응'을 달리하는 모양이야.
③ '감각'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면, 보초병이 만득이에게 암호를 묻는 것이 불가능했겠지?
④ 보초병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것은 만득이의 정체에 관해 '처리'하고 있음을 뜻하는 거야.
⑤ 만득이의 형체는 보초병에게 '자극'이 될 수 있었지만, 만득이의 말소리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

46. ㉠에 들어갈 비유적 표현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동일한 벽돌로 여러 형태의 집을 지을 수 있는
② 철로가 놓여 있지 않은 곳은 열차를 운행할 수 없는
③ 고무공에 힘을 가하면 여러 모양으로 변형할 수 있는
④ 경사면에 물을 부으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⑤ 눈 알갱이를 들여다보면 육각형 속의 육각형이 반복되고 있는

47. ㉡의 개념을 유추의 방법으로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학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자동 응답 전화
② 페달을 밟는 정도에 따라 속도가 달라지는 자전거
③ 범행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 폐쇄 회로 TV
④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추를 눌러야 작동하는 경보기
⑤ 교신을 통하여 비행기의 안전 착륙을 유도하는 관제탑

[48~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 때 김전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그가 전에 살려 주었던 거북의 도움으로 생명을 건지고, 거북에게서 '壽(수)'자와 '福(복)'자가 새겨진 진주 두 개를 얻는다. 김전의 딸 숙향은 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져 온갖 가혹한 시련을 겪는 중, 전생에 천상에서 선녀로 지내던 때의 꿈을 꾸고 나서 그 광경을 수로 놓는다. 병부상서 이위공의 아들 선은 숙향이 수를 놓은 그림을 보고, 자신이 꿈속에서 보았던 전생의 모습과 같은 데 놀란다. 그리고 숙향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선녀의 말을 떠올리고 숙향을 찾아가 마침내 그녀와 혼인을 한다. 한편 양왕의 딸 매향과 이선은 정혼한 사이였는데, 이선이 정혼을 파하고 숙향과 혼인하는 바람에 양왕은 이선에게 앙심을 품고 해할 마음을 갖는다.

이 때에 황태후 병이 드시되 증세 괴상하여 귀 먹고 눈 어둡고 말 못하는지라. 일국이 진동하더니, 한 도사가 와서 천자께 뵈옵고 여쭈어 말하기를,

"이 병환은 침약(鍼藥)으로 고치지 못하고 다만 봉래산 개언초와 천태산 병이용과 동해 용왕의 개안주를 얻어야 나으실 것이니 어진 신하를 보내어 정성으로 구하소서."

하니 상이 즉시 조신을 모으고 의논하실새 양왕이 아뢰어 말하기를,

"조신 중에 이선이 가히 보냄 직하오니 얼마 아니하여 약을 얻어 올까 하나이다."

상이 초공을 부르시어 말하기를,

"짐이 경의 충성을 아노니 이 약을 얻어 오겠느냐?"

하니 초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신자(臣子) 되어 어찌 폐하의 이르심을 사양하리이까마는 다만 세 곳이 다 인간 세계가 아니오니 돌아올 기한을 정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하직한 후에 집에 돌아오니, 부모와 상서 모두 이별할 때 다시 못 볼까 서로 슬퍼하며, 부인과 서로 이별할새 초공이 말하기를,

"나의 길이 앞일을 모르는지라, 부인은 나를 위하여 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부디 보중하소서. 나의 목숨은 북창 밖에 있는 동백을 보아 짐작하되 나무가 울거든 병든 줄 알고 가지 무성하거든 무사히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소서."

하니 부인이 또한 ㉠옥지환 한 짝을 주며 말하기를,

"이 진주빛이 누르거든 첩이 병든 줄 알고 검거든 죽은 줄로 아소서."

하고 봉한 글을 주며, '천태산 마고 할미께 전하라.' 하더라.

초공이 부모께 하직하고 발행하여 남쪽으로 향하더니 배에 오른 지 보름만에 큰 바다 가운데 들어 대풍이 일어나 배가 물 속에 출몰하여 배 안 여러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할 차에 문득 한 짐승이 물 속으로부터 내달으니 그 고기 뫼 같고 뒤웅박 같은 눈이 셋이로되 눈빛이 불빛 같은지라.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사람인데 남의 땅에 지세도 아니 주고 당돌히 지나가고자 하느냐?"

하니 초공이 말하기를,

"나는 중국 사신으로 황태후 병이 중하시어 황명을 받들어 봉래산에 선약을 얻으러 가니 잠시 길을 빌리고자 하나이다."

그 짐승이 말하기를,

"잡말 말고 가진 보배를 다 주고 가라."

하며 배를 잡고 힐난하거늘 초공이 민망하여 빌며 말하기를,

"가져가는 것이 양식밖에 없노라."

그 짐승이 성내어 말하기를,

㉡ "정녕 보배를 짐작하거늘 정 아니 주면 이 배를 엎치리라."

하니 공이 어쩔 수 없어 옥지환을 내어 주니 그 짐승이 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동해 용왕의 개안주(開眼珠)니 네 어디 가서 훔쳤느냐?"

하고 배를 끌고 가니 한 곳에 다달아 그 짐승이 배를 머무르고 말하기를,

"용왕께 여쭈어 네 죄를 물은 후에 놓아 주리라."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붉은 도포를 입은 선관(仙官)이 나와 물어 가로되, / "네 아내가 누구의 딸이냐?"

공이 말하기를, / "내 아내는 상서 김전의 딸 숙향이니이다."

그 선관이 들어가더니 용왕이 나오신다 하여 수중이 진동하며 왕이 나와 초공을 맞거늘 공이 가장 송구하여 나아가 재배하니 왕이 붙들어 앞에 올려 자리를 정하고 앉은 후에 왕이 사죄하여 말하기를,

"저는 이 곳 용왕이러니 귀인이 지나가실 줄을 어찌 뜻하였으리오? 지난 날 내 누이를 반하수에서 김 상서가 구하시어 살아나매 은혜 갚을 길이 없어 이 진주를 드렸는지라. 복(福)자를 가졌으면 사람이 오래 살고 죽은 몸에 얹어 두면 천만 년이라도 살이 썩지 아니하는 보배라. 수족 등이 다 아는고로 오늘 순행하다가 멀리서 상서의 기운이 있다 하기로 알아 오라 하였더니, 아랫것들의 전언을 들은즉 귀인이 가신다 하기에 반가운지라. 대저 봉래산에 가시면 약은 얻으려니와 여기서 일만이천 리나 되고 십이국을 지나가고 약수(弱水)가 가려진 데 있으니 인간의 배로는 건너기 어려울까 하노라."

- 작자 미상, '숙향전' -

48.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점]

① 특정 상황을 과장하여 해학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주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서술자가 적극 개입하여 인물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④ 대화를 통해 사건의 내막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⑤ 일상 언어를 구사하여 서민의 생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9. 위 글의 내용을 한자 숙어를 활용하여 나타내 보았다.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① 초공은 풍수지탄(風樹之嘆)의 심정으로 부모와 아내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집을 떠났다.
② 용왕은 누이를 살려 준 김전에게 진귀한 보배를 두 개씩이나 주어 결초보은(結草報恩)하고자 하였다.
③ 보배를 내놓으라는 짐승의 위협에, 초공은 속수무책(束手無策)으로 아내가 준 옥지환을 내주고 말았다.
④ 초공이 가야 하는 봉래산은 일만이천 리 길인데다가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약수까지 가로막고 있었다.
⑤ 양왕은 이선에게 앙갚음을 하려고 절치부심(切齒腐心)하던 차에 선약을 구해올 신하로 이선을 천거하여 사지로 내몰았다.

50.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1점]

① 김전의 덕행의 결과가 딸에게 미침을 드러낸다.
② 초공이 아내를 위해 도둑의 누명을 쓰게 한다.
③ 초공이 부인의 안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④ 황태후의 병을 고치는 약으로 사용된다.
⑤ 초공과 용왕의 만남을 매개한다.

1.5 말하기 방식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거북아, 거북아, / 머리를 내어라. / 내어놓지 않으면, / 구워서 먹으리.
② 슬프구나 /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 아아, 임이시여. 마음을 돌려 사랑해 주소서.
③ 훨훨 나는 저 꾀꼬리 / 암수 서로 정답게 노니는데, / 외로울사 이 내 몸은 / 뉘와 함께 돌아갈꼬?
④ 임이여, 물을 건너지 마오. / 임은 그예 물을 건너시네. /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 가신 임을 어이할꼬.
⑤ 달이시여! 높이높이 돋으시어 / 멀리멀리 비춰 주소서. / 시장에 가 계신가요? /위험한 곳을 디딜까 두렵습니다.

2.5 위 글 다음에 <보기>의 내용이 이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u>않은</u> 것은? [3점]

< 보 기 >

마침 한 소년이 있어 용왕과 공 앞에 나아가 공손히 절하고 앉으니, 왕이 공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는 내 아들로서 장차 선관(仙官)이 되기를 도모하는 중이라오."

하고, 또 소년에게 이르기를,

"이 손은 천상의 신선인 태을(太乙)이시자 우리 집안의 은인이시니, 황태후 약을 구하러 봉래산 가시는 길을 뫼셔 아무쪼록 정성으로 봉행한다면 일만이천 리 지경을 지나 약수를 건너 무사히 황태후를 살릴 약을 구할 것이니라. 그리하면 너 또한 태을선의 힘을 얻어 쉬이 선관이 될지라."

이에 초공이 어두웠던 낯빛을 고쳐 크게 기뻐하며 용왕께 사은 숙배하더라.

① 위 글과 <보기> 사이에 초공의 절망적 심정이 드러난 부분을 삽입해야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② 초공에게 조력자를 동행하게 한 것은 황태후의 병이 치유될 것을 암시하는 장치가 될 수 있겠군.
③ 초공을 '천상의 신선인 태을'이라고 지칭함으로써 숙향과의 결혼이 필연이었음을 더 강조하고 있군.
④ 선관이 되려는 아들을 등장시킨 설정은 초공에 대한 용왕의 호의가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비치게 해.
⑤ 용왕의 아들은 사건 전개상의 역할에 비해 너무 나약한 인물로 그려졌으니, 좀더 강인한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좋았을 텐데.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에서는 풍경화가 일찍부터 발달하였지만 서양에서는 시기적으로 그보다 한참 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런 현상의 바탕에는 자연과 우주를 바라보는 두 문화권의 시각 차이가 깔려 있다. 동양의 사유 형태에서는 세계를 신비적 직관에 의거하여 ⓐ 종합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의 개별적 주관성보다는 세계와 하나 됨을 지향하는 합일성(合一性)을 강조한다. 반면 서양의 사유 형태에서는 냉철한 이성에 의거하여 세계를 ⓑ 분석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아를 세계와 대립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는 개별적 주관성을 강조한다.

동양화가 풍경화를 주된 흐름으로 하여 전개되어 온 원인도 여기에서 찾을 수가 있다. 동양에서는 일찍이 ㉠ 자연을 인간과 교감을 나누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에 바탕을 두고 산수화를 그렸다. 그러나 서양의 정신 체계 속에서는 이 같은 태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들의 자연은 어디까지나 인간과 대립 관계 속에 놓여져 있었으므로 애초부터 풍경화가 중요시될 수 없었다.

서양에서 풍경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자연으로 귀의하려는 의식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외경심이 싹트던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낭만주의 시대였다. 낭만주의 시대 이전만 하더라도 이성 우위의 사고 속에서, 자연은 단순히 정복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해될 뿐이었다. 그러나 서양의 합리주의적 이성에 반기를 든 최초의 사조인 낭만주의는 인간 이성의 왜소함을 자각하고, 자연의 신비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다. 서양 정신은 이러한 낭만주의 사조가 출현함에 따라 비로소 자연의 본질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이다. 서양의 풍경화는 바로 이 같은 정신적 토양에서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관점을 달리하고 있는 두 문화권의 풍경화가 근본적으로 같을 수는 없었다. 서양의 화가들이 자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는 하나, 풍경화에는 여전히 대립적인 관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즉 인간과 자연, 그리는 자의 시점과 자연 경관이 대립 관계에 놓여 있었으며, '나'라고 하는 한 시점의 정지된 주관성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동양의 전통적 산수화에는 '나'와 '자연'의 합일적 관계만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동양의 산수화에 나타나는 그리는 자의 시점은 풍경 속에 일체가 되어 그 속에서 이리저리 움직여 나아가는 다시점(多視點)의 유동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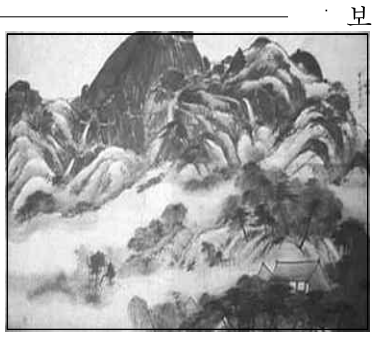
이렇듯 동양의 산수화와 서양의 풍경화에는 동양과 서양 문화권에 형성된 자연관의 차이 및 사유 형태의 차이가 반영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서로 다른 정신에서 출발했던 두 종류의 그림에 나타난 차이점을 분석하고, 그것이 그림의 세세한 부분이나 표현 기법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은 그림을 감상하는 또 하나의 재미를 제공한다.

53. 위 글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① 문제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한 다음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② 대상이 지닌 양면적 특성을 종합하여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③ 일반적 통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포착한 후 이를 비판하고 있다.
④ 개별적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후 공통적 속성을 이끌어 내고 있다.
⑤ 대상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바탕으로 현상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있다.

54. 위 글의 글쓴이가 <보기>의 그림을 이용해 대중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 정선의 〈인왕제색도〉



㉯ 컨스터블의 〈건초 수레〉

① ㉮와 ㉯ 두 그림을 비교 감상해 보면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갖고 있는 자연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② ㉮의 대부분은 그윽한 자연의 풍경을 제시하고 있고, 화면의 구석에 가옥을 배치하고 있어요. 자연의 모습을 중시하는 동양 산수화의 특징이 나타난 것이지요.
③ ㉯를 보면 자연은 배경 정도로만 제시되어 있고, 인간의 생활과 관련된 소재들이 화면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는 서양 풍경화에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의 하나로 볼 수 있어요.
④ ㉮에 제시된 수목과 가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본 듯한데, 산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본 듯 하지요? 이것은 인간을 지배하는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어요.
⑤ ㉯에 제시된 수목과 가옥, 수레 등 모든 풍경은 하나의 시점에 맞춰져 제시되고 있어요. 이것은 자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인간의 주관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55. ㉠을 가장 잘 형상화한 작품은? [1점]

①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를 바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아녀도 못내 좋아하노라. - 윤선도 -

②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집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업세라. - 김종서 -

③ 간밤에 불던 바람 눈서리 치단 말가
낙락장송이 다 기우러 가노매라
하물며 못다 핀 꽃이야 일러 무엇하리오. - 유응부 -

④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듯 불고 간 데 없다.
져근덧 빌어다가 머리 위에 불리고져
귀 밑에 해묵은 서리를 녹여 볼까 하노라. - 우 탁 -

⑤ 심산에 밤이 드니 북풍이 더욱 차다.
옥루고처에도 이 바람 부는 게오.
긴 밤의 추우신가 북두 비겨 바라노라. - 박인로 -

56. ⓐ : ⓑ의 의미 관계와 유사하지 않은 것은? [1점]

① 내면적 : 심층적
② 거시적 : 미시적
③ 직접적 : 간접적
④ 수렴적 : 발산적
⑤ 창조적 : 모방적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구 곳곳에서 태풍, 장마, 가뭄 등의 이상 기후가 계속되고 있다. 토론토 기후 회의에서는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발생할 기후·환경적 변화를 '핵전쟁에 버금가는 재난'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각국 정부와 관련 단체들은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로 알려져 있다.

지구 환경 파괴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이산화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 찾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찾아야 할 새로운 에너지원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오염 물질을 발생시켜서도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의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라고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통해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일부의 견해와는 달리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예를 들어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최소한 전 세계 전력 소비량만큼은 충당할 수 있게 된다.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에서 현재 소비되는 전력을 태양 전지만을 이용하여 생산한다고 할 때, 태양 전지를 설치해야 할 면적은 뉴멕시코 주 전체 넓이의 3퍼센트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 1950년 이래 미국은 국민 1인당 연간 5톤의 이산화탄소를 대기로 방출한 반면, 개발도상국의 주민은 그 20분의 1도 안 되는 225킬로그램을 방출했다. 그리고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으로 환산했을 때 미국은 국민 1인당 연간 10,200킬로그램을 소비했으나, 인도는 그 30분의 1도 안 되는 300킬로그램을 사용해 왔다고 한다. 이는 현대인의 풍요로운 생활과 그 근간을 이루는 산업 체제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량 생산·대량 소비에 기초한 미국식 산업 체제가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서구를 포함한 전 세계 국가가 미국식 체제를 따른다면, 머지않아 세계의 에너지 소비량은 현재보다 수십 배 증가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그 어떤 에너지를 도입하더라도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기존의 에너지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현재의 환경 위기는 결코 극복할 수 없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소비가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경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 현 산업 체제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수요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현대 산업 체제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이냐 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결국 산업과 생활에서 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 사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57.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①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양은 소량에 불과하다.
②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난화 현상의 주요 원인이다.
③ 현재 1인당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다.
④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은 모두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이다.
⑤ 현대인의 풍요로운 생활은 많은 에너지 소비에 바탕을 두고 있다.

58.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환경 문제의 해결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환경 문제가 곧 에너지 문제임을 깨닫는다.
↓
오염원을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찾는 데 힘쓴다.
↓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 기초한 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
[A]
↓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과 아울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산업 체제의 변화를 도모한다.

① 급격히 늘고 있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개발한다.
② 에너지의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③ 정부가 각 개인들의 에너지 소비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④ 산업 체제나 생활 등 사회의 전 분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식을 바꾼다.
⑤ 현재의 산업 체제나 생활로는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음을 인식한다.

59. ㉠의 문맥적 의미를 바르게 추정한 것은? [1점]

① 감추어진 어떤 것을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니까, '색출(索出)'의 뜻으로 보이는데.
② 미처 몰랐던 사실 또는 현상을 알아내는 것이니까, '발견(發見)'의 뜻으로 보이는데.
③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내는 것이니까, '모색(摸索)'의 뜻으로 보이는데.
④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을 새로 찾아내는 것이니까, '발굴(發掘)'의 뜻으로 보이는데.
⑤ 아직까지 없던 것을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 '발명(發明)'의 뜻으로 보이는데.

60. ㉡에 드러난 서술 방식을 <보기>에서 모두 찾으면? [1점]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